

이민우, 집 비번 잊었던 79세母 모시고 치매 검사

등록 2024.06.15 10:24:02



[서울=뉴시스] 15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되는 KBS 2TV 예능물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이민우의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전문 병원을 찾는다. (사진=KBS 2TV 예능물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제공) 2024.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호령 기자 =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어머니의 치매 검사 결과가 공개된다.

15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되는 KBS 2TV 예능물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 이민우의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전문 병원을 찾는다.

이민우 어머니는 지난 방송에서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 치매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건망증 증세를 보인 바 있다.

사전 진료 중 이민우 남매는 옆에서 지켜봐 온 어머니의 증상들을 의사에게 이야기한다. 당사자인 이민우 어머니는 "바로 하루 전 미용실 다녀온 사실도 기억이 안 난 적 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에 갔다는 건 기억나는데 어딜 갔다온지 모르겠더라" 며 그동안 가족들에게 숨겨왔던 치매 의심 증세를 고백해 가족들을 더욱 놀라게 한다.

이어 부모님의 치매 검사가 진행되고 이민우 남매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이민우는 이날 유독 긴장한 어머니의 모습에 "늘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엄마가 약해진 모습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든다. 엄마한테 짜증 좀 덜 낼걸, 밥 제때 먹으라고 할 때 먹을 걸 하는 후회가 든다"고 속마음을 전해 모두를 먹먹하게 한다.

긴 기다림 끝에 이민우 부모님의 치매 검사 결과가 공개된다.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의사는 치매 검사에서 밝혀진 부모님의 이상 소견을 전한다. 이민우 남매는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치매 검사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눈길을 모은다.

이민우는 "익숙함이 무서운 거라고 어머니의 건망증을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방송 촬영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을 좀 더 늦게 알아채지 않았을까 싶다. '살림남' 제작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